

출장보고서
2010. 10. 19 - 10. 24
미국 뉴욕

거시경제연구부
김현욱 (선임연구위원)
한규숙 (연구원)

「The 2010 Meeting of Project LINK」

출장보고

2010. 10.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주요 회의 내용	2
<참고> Project LINK의 경제전망	14

韓 國 開 發 研 究 院

I. 출장개요

1. 출장자

-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한규숙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2. 출장기간

- 2010년 10월 19일 ~ 24일 (5박 6일)

3. 출장지

- 미국 뉴욕 소재 Club Quarters Executive Club 빌딩, UN 본부 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회의장소 부족으로 장소 변경

4. 출장목적

- 「The 2010 Meeting of Project LINK」 참석
 - 세계경제 성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임.
 - 「Project LINK」는 전세계 60여개국의 연구네트워크로서 경제이슈의 계량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UN의 경제사회 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과 Project LINK Research Centr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가 공동으로 주관

5. 출장자 활동사항

- 회의 및 토론에 참여
 - 회의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 요약한 내용을 참조

II. 주요 회의 내용

1. 세계경제 전망 (UN-DESA)

-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나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과 개도국의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
 - 개도국의 성장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선진국은 경기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유럽 및 CIS 국가의 성장률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한 수준
 - 선진국의 실업률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취약성 및 “통화전쟁”에 대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 개도국의 경우 외국자본유입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와 통화절상 및 자산버블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글로벌 불균형은 확대되는 모습
 - 이에 따라,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2010년 3.6%)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고용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양적완화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기할 필요
- 개도국을 중심으로 대외거래는 회복되었고 원자재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세계경제 여건은 개선되는 모습이나 선진국은 느린 회복세를 나타냄.
 - 개도국의 국제무역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은 위기가 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다시 상승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
 - 스페인을 비롯한 선진국의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이전의 위기에 비하여 고용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모습

- 또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EU 국가의 경우 국채스프레드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양적완화 정책이후 FED의 부채는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통화 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남아공 등 개도국의 통화절상이 지속
 -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순대외채무는 증가하는 모습
-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회복 및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의 전환과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등 정책적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세계경제의 리밸런싱을 지속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2. 세계경제 전망 (IMF)

-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대내외 수요의 리밸런싱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은 예상대로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경기 회복에 필요한 대내외 수요의 리밸런싱(경상수지 흑자국가의 민간수요를 낮추고 적자국가의 공공수요를 높이는)이 느리게 진행
 - 선진국의 경우 공공수요가 민간수요로 이전되는 과정(재고조정→ 투자→고용 → 소비를 진작시키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 개도국은 고정투자가 산업생산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투자의 증가가 고용 및 소비의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모습.
 - 대외 리밸런싱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든 개도국은 국내수요를 증진시켜야 하며,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외국자본유입과 준비자산을 축적시킬 필요

- 2010년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4.8%(2011년 4.2%)까지 확대될 전망
 - 대부분 선진국의 회복세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도국의 성장세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에 성장률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방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데 2%p를 하회할 수준
 - 은행부문의 위험이 성장을 저해시킴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선진국은 중기재정계획과 재정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개도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낮은 산출(혹은 고용부진)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
 - 통화정책 및 금융구조 개선: 가계신용을 뒷받침하는 은행부문을 지지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을 재조정(수정)의 필요
 - 중기재정계획: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여지를 포함할 수 있는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
 - 구조개혁의 필요성: 특히, 개도국은 국내수요를 성장시킬 환율의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구조 재조정이 필요.

3. 회복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 (World Bank)

- 산업생산은 성장추이에 가까워지는 등 모든 지역은 세계경제 회복세로 전환된 모습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은 존재
 - 고소득국가의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은 낮은 상태이지만 아시아권 개도국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국제무역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자본재수출 국가는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일부 고소득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무수익여신은 2010년중 개선되는 모습이며, 개도국의 주식시장 변동성은 안정되는 모습

- 최근 유럽국가채무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나 개도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 또한, 민간 자본이동은 위기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회사채발행액이 은행대출의 낮은 수준을 보완하고 있음.
-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통화전쟁”은 공급측면을 개선시키는 구조조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임.

4. 재정통합 (UN-ESCAP)

- G20 토론토 정상 선언문 등을 통해 재정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권고
-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는 재정계획을 약속”
 -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함”
 - G-20 국가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4년까지 118%로 낮추고, IMF는 위의 국가의 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GDP대비 8.7%로 조정하도록 권고
 - IMF는 2010년 4월중, 2030년까지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선진국은 60%(위기이전 절반수준), 개도국은 40%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평균 조정수준은 선진국은 GDP의 8.7%, 개도국은 2.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5. 국제원자재 가격

- 금융위기 기간중 하락했던 유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0년중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최근 가격추이는 안정되는 모습
 - 위기기간중 2%가량 축소되었던 유가수요는 최근 들어 그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가는 배럴당 78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안정되는 모습
 - 금년중 선진국 유가수요의 하락추이가 지속되었으나 성장을 견인한 개도국(중국)의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
- 2011년 유가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0년보다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수요측면에서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소비와 복지 수준이 향상되면서 유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은 낮은 성장률과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수요는 완만하게 줄어들 전망
 - Non-OPEC 국가(브라질, 아제르바이잔)는 '11년중 생산량의 증가분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OECD 국가중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량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원자재가격의 증가세는 2010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부분적으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투자가 줄어들면서 금속류에 대한 수요가 소폭 하락하여 금속에 대한 가격추이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 2010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최근 상승세로 반전
 - 2011년과 2012년은 공급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곡물가격의 특성상 주요생산국의 공급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

6. 성장 및 불균형에 대한 전망 (OECD)

- 대부분 OECD 국가들은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고, 재정 및 글로벌 불균형 등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적정수준의 재정통합이 요구되는 시점
 - 금융위기 이후 잠재 성장률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GDP대비 국가부채가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이 존재
 -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높은 상태를 지속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OECD 국가들간에 재정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금리를 낮추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함.
 - 즉, 재정통합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리를 하락시키고 자본비용에 감소를 야기함.
- 재정통합에 이어 금융시장 및 기업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국가별 구조개혁을 통해 경상수지적자를 낮추고 잠재 성장률을 높일 필요
 - Non - OECD 아시아국가(순저축을 낮추고 수요측면의 균형에 초점):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금융시장 및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를 20% 정도 절상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
 - 미국(수요측면의 균형):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세금구조를 개혁하며 달러화의 절상이 필요
 - 유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
 - 일본: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개혁할 필요
-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 적절한 정도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며 중기적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조 개혁 및 환율 절상이 요구됨.

7. 미국경제 전망 (UN-DESA)

-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던 미국경제는 2009년 3분기 이후 전형적인 회복기조를 나타냈으며 최근 2/4분기 성장률은 2%(연율)를 하회
 - 2/4분기 성장률에 재고조정이 6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민간소비에 이어 정부소비 및 투자 순으로 성장에 기여하였고, 수입의 감소로 침체기간중 순수출은 GDP의 하락을 완화시키는 등 완만한 회복기조가 나타남.
 - 하지만 소비의 회복세가 느리게 나타나고 노동시장은 시간당임금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으로 연결되어 고용시장의 회복은 더디게 나타날 전망
- 미국경제는 금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0~2012년 미국경제 전망

(%)

	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	수출	수입	CPI	실업률
2010	2.6	1.6	0.6	2.7	10.6	10.7	1.4	9.6
2011	2.2	2.2	-0.3	6.5	9.2	9.3	1.4	9.2
2012	2.8	2.4	-1.1	10.2	9.1	9.1	1.6	9.0

8. 일본경제 전망 (Osaka University)

- 일본의 실물경제지표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느리지만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
 - 일본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높은 수준이고, 2009년 명목 GDP는 1992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주요국 환율에 비해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 및 수출입

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 소비자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상태는 지속되는 모습이나 임금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이 나아지면서 소비자신뢰지수는 개선되는 모습
- 최근 일본은행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정부채 및 기업어음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35조엔 가량 매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등 5조엔에 달하는 재정정책을 제시

□ 2011년중 내수 및 대외거래의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일본의 GDP는 1.2% 증가할 전망

- 특히 기업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기업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9. 유로경제 전망 (UN-ECE)

□ 회복시기에 있어 주요 선진국보다 다소 느린점이 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나 재정통합에 따른 하방위험이 존재

- 미국 및 중국의 내수부문이 살아나면서 대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입은 금년 2/4분기 경제성장을 견인
- 대부분의 유로지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한 가운데 국가별 전망치는 상이한 모습이며 재정통합에 대한 압력 및 그리스의 신용부족,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등 하방 위험이 존재
- 국가별 정부부채는 걱정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며 유로국가의 재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GDP의 4.5%(2007년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과 추가의 재정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은 증가할 전망
- 한편 폴란드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모습이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구조적 실업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재정통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2011년 유로지역 성장률은 더딘 회

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10. 기타지역경제 전망 (UN-ESCAP, ECA, ECLAC)

- 서아시아의 경우 2011년은 4.7%, 2012년은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국은 성장에 타격을 입었으나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모습
 - 또한, 두바이 쇼크는 유동성 위기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주식시장은 회복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 한편, 2008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의 물가는 내려가는 모습이며
 - UAE 와 Qatar는 디플레이션 압력 및 부실채권(NPL)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임대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 노동시장은 잠재적실업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터키를 비롯한 서아시아 국가의 실업률은 2011년중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는 2009년 2.4% 성장하였으나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2010년은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견실한 수요와 개도국의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품가격의 회복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및 통신산업도 경기확장을 뒷받침.
 - 국가별 소득격차는 존재하지만 유가 수출국 및 수입국 모두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여건을 반영하는 통계수치의 정확성은 떨어지나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율은 상승하는 모습
 -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이 존재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임에 따라 2011년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

11.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경제

- 아시아 경제는 최근 경기 회복 이후의 선진국의 낮은 성장에 따른 수출 둔화 및 환율의 빠른 절상 등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의 낮은 성장률은 아시아 지역의 대외거래의 위축을 가져오고 선진국의 느슨한 통화정책은 아시아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 최근 수출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이미 위기이전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선진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에 따른 하방위험이 존재
 - 또한 2009년 하반기부터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율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
 - 한편 저소득 국가의 경우 식료품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가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 모습
- 현재 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방위험에 대한 국가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예,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 선진국의 느린 성장에 따른 대외거래 위축에 대비하여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

2010~2011년 주요 아시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

	2010	2011
한 국	6.2	4.2
중 국	10.0	9.0
인 도	9.0	9.0
대 만	8.7	4.1

<참고> Project LINK의 경제전망 (2010년 10월 현재)^{a)}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b)}	2011 ^{c)}	2012 ^{c)}
World	3.6	4.1	4.0	1.6	-2.0	3.6	3.1	3.5
Developed economies	2.5	2.8	2.5	0.1	-3.5	2.2	1.9	2.3
North America	3.1	2.7	2.0	0.0	-2.6	2.6	2.2	2.8
Asia and Oceania	2.1	2.1	2.7	-0.7	-4.2	2.8	1.5	1.7
Europe	2.0	3.2	3.0	0.5	-4.1	1.6	-1.8	2.1
European Union	2.0	3.3	3.0	0.5	-4.2	1.6	1.7	2.1
EU-15	1.8	3.0	2.8	0.3	-4.2	1.6	1.6	1.9
New EU Members	4.7	6.5	6.2	3.9	-3.5	1.7	3.2	4.3
Other Europe	2.8	3.1	3.3	1.4	-1.8	0.7	-2.3	3.0
<i>Memorandum items:</i>								
Euro Zone	1.7	3.1	2.8	0.4	-4.1	1.5	1.5	1.7
Major developed economies (G-7)	2.3	2.6	2.2	-0.2	-3.6	2.4	1.9	2.3
OECD	2.6	2.9	2.6	0.2	-3.4	2.4	2.0	2.4
Economies in transition	6.5	8.3	8.6	5.1	-6.7	3.8	4.0	5.0
South-eastern Europe	4.6	5.1	6.1	4.3	-3.7	0.1	2.3	3.4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6.6	8.6	8.8	5.2	-7.0	4.1	4.1	5.1
Developing countries	6.8	7.5	7.9	5.3	2.3	7.0	6.0	6.0
Africa	5.5	5.9	6.0	5.0	2.3	4.7	5.1	5.1
North Africa	5.1	5.4	5.0	4.7	2.8	4.6	5.1	5.7
Sub-Saharan Africa	5.7	6.2	6.5	5.1	2.0	4.7	5.0	4.7
East and South Asia	8.0	9.0	9.9	6.1	4.9	8.3	7.1	7.1
East Asia	8.0	9.2	10.2	6.4	5.0	8.6	7.1	7.1
South Asia	8.0	8.5	8.9	5.1	4.8	7.0	6.8	7.2
Western Asia	6.9	6.1	5.1	4.4	-1.0	5.5	4.7	4.4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4.6	5.6	5.6	4.0	-2.1	5.3	4.0	4.1
South America	5.0	5.5	6.5	5.3	-0.3	5.9	4.5	4.8
Mexico and Central America	3.4	5.1	3.7	1.8	-5.9	4.3	3.3	3.0
Caribbean	8.1	10.3	6.5	3.6	0.7	2.7	3.1	2.8
<i>Memorandum items:</i>								
Least developed countries	7.6	7.6	8.1	6.7	4.0	5.2	5.6	5.5
Sub-Saharan Africa (excluding Nigeria and South Africa)	6.2	6.7	7.2	5.9	3.1	5.3	5.8	5.5
East Asia (excluding China)	5.0	5.7	5.9	2.8	0.0	7.0	4.8	4.9
South Asia (excluding India)	5.9	6.1	6.8	2.2	3.0	3.7	4.0	4.3
Western Asia (excluding Israel and Turkey)	6.3	5.6	5.3	6.9	0.9	4.6	4.9	4.2

주 : a) 2005년 물가와 환율기준으로 국가별 GDP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b) 잠정치.
 c) 전망치.